

光州日報 연중캠페인

문화감각을 키우자 <1> 프롤로그

21세기는 '문화'가 주인이 되는 시대다. 특히 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 문화 중심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의 비전은 '문화'가 그 핵심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훌륭한 건물이 들어서고, 각종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문화를 즐기고,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시설도 겹겹이 불과하다. 문화는 특정 소수자가 누리는 사치가 아니다. 생활이고 삶이다. 열린 마음으로 조금씩 배우고 노력하면 행복한 문화시민이 될 수 있다. 문화도시의 주인공으로 문화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할 시리즈를 시작한다.

문화는 쉽고 아름다운 '사람들 이야기'

지난 14일 광주의 대표적 재래시장인 말바우 시장에서 국립집 전시회가 개막됐다. 광주의 작가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말 그대로 국립집에 내 건 전시였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대촌국밥 주인 장경숙(여·50)씨는 "처음에 우리 국립집에서 전시회를 한다는데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우리가 언제 그림 보러 가봤어야지, 오늘 전시된 그림이랑, 사진을 보니 아 이런 거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장씨는 "근데 그림 내용은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손님들에게 설명도 해 주고 그려야 할 텐데..."하고 웃었다.

전시회에 참여한 작가 문학렬(50)씨는 "사실, 갤러리라는 곳이 문턱이 높은 곳이다. 요즘에는 작가들이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등 갤러리가 아닌 대안 공간들에 관심이 많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작품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5월 14일까지 시장 통 사람들과 장에 물건 사러 나온 시민들은 '국밥집'을 통해 '미술'이라는 장르에 한발짝 다가갈 수 있게 된 셈이다.

지난 3월 광주문화회관에서 열린 광주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은 색다른 시도였다. 베토벤의 음악을 집중적으로 연주한 이



회에 대한 마인드는 어느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많이 접하고, 공부하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지난해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광주에서도 북구문화의 집이 '학교디자인프로젝트' '지하철 설계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교육의 터를 닦고 있는 점은 바람직스럽다.

광주시립미술관이 어린이 관람객을 위해 준비한 '즐거움 미술여행전'(5월28일까지)은 어린이가 조기 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타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어린이 대상 전시회 등이 꾸준히 진행됐지만 광주시립미술관은 개관 이래 처음으로 어린이 대상 전시회를 꾸렸다. 다소 낮은 감이 없진 않지만 아직 홍보가 되지 않았음에도 하루 평균 관람객 수는 400여명에 이른다. 수요는 있었으나 지금까지 공급이 없었다는 얘기다.

어린이·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절실하다. 현재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문화예술신문 등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참여도는 낮은 편이다.

클래식 연주회에서 공연에는 관심 없고 팝뮤직 확보에만 열을

지하철 공연·국밥집 전시회 등 '문화문턱' 낮추는 노력 필요
티켓 구입 순간 '문화시민' 반열에

잘 알지 못해도 자주 찾으면 '문화마인드' 업그레이드
미술관·공연장 교육학습장으로

날 공연장 로비에는 신창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린 베토벤 그림 등 다양한 작품들이 함께 전시됐다.

베토벤에 대한 공부를 하고, 또 자신들이 그린 작품이 전시된 것을 본 아이들은 연주회에 좀 더 집중하며 즐겁게 음악을 감상했다. 이날 역시 '수행평가'를 위해 공연장을 찾은 일부 청소년들 때문에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어른들이 함께 감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지만 "아이들이 클래식 음악과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했다"는 주최측의 의도는 일정 정도 성공한 셈이었다.

적어도 이날 전시회와 음악회에 함께 참여한 아이들은 다른 또래들에 비해 '문화'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공연장·미술관 특별헌(?) 사람이 가는 곳=광주가 예향이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공연을 보러가거나, 전시회장을 찾는 건 '특별한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문화관광부가 광주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가 이런 생각을 반영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광주시민 10명중 9명은 3개월 동안 연극 공연장이나 미술관·문화회관 등 순수 문화 시설을 단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관을 한번도 가 보지 않은 사람은 약 937명, 문화회관을 단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900명이나 됐고, 박물관의 경우 861명이 한번도 이용하지 않았다. 특히 미술관·문화회관·박물관 등 순수 문화시설 이용자중 20~30대 젊은층

이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돼 '문화 광주'의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지역 문화 전문가들은 문광부 조사가 3개월을 기준으로 진행됐지만 1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자조한다.

이 통계에서 보듯 광주는 공연문화가 가장 적박한 곳으로 꼽힌다. 화제를 모으고 있는 유명 공연의 경우 서울과 대전, 전주까지는 내려오지만 광주는 그냥 건너 뛴다. 클래식·연극·무용 등 순수 공연은 물론이고, 웬만한 유명 스타가 등장하지 않으면 요즘 가장 인기를 모으고 있는 뮤지컬도 수지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요즘 문화계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난다고 우려한다. 광주에서 가문에 콩 나듯 공연되는 대형 작품의 경우 티켓 가격이 4만~9만원에 달해 보통사람들이 엄두내기 어려운

액수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광주시가 운영하는 시립단체들의 역할이 크다. 시립단체들의 공연 티켓값은 5천~1만원 수준으로 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수준. 현재 광주에는 교향악단 등 6개의 예술단체가 활동하고 있지만 2005년 한해 시립단체들의 공연을 관람한 관객은 2만7천명에 불과했다.

공연에 무관심한 시민들의 탓도 있지만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재미있고 멋진' 공연을 무대에 올렸는지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한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립단체가 시민들의 문화마인드 업그레이드에 앞장 서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문화 마인드. 어릴 적부터 키워야=전문가들은 광주의 문화가 척박해지는 이유중의 하나로 '문화예술 교육'의 부재를 꼽는다. 문

물리는 중·고생들을 붙잡고 물어보면 음악회에서 연주되는 음악 프로그램이나 관람 에티켓에 대해 학교에서 미리 공부하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난해 열린 디자인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행사 기간 동안에는 가이드 라인을 설치하고 작품 주변에 직원이 배치됐지만 관람객들의 부주의로 12 작품이 훼손됐다.

관람문화가 어느 순간 좋아질 수는 없을 것이다. 미술·공연 등 문화에 대해 조금씩 배우고 문화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면 관람 문화는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 된다.

▲생활 속에 문화가 있다=문화는 우리 삶 가까이 있다. 요즘엔 딱딱한 공연장이나 전시장이 아닌, 열린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다.

광주지하철 상무역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지하철 예술무대'가 대표적인 케이스. 이 곳에서는 클래식, 대중음악, 시 낭송, 전시회, 인형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요일별로 열리고 있다. 또 최근에는 광주시립무용단의 '이야기가 있는 발레' 등 친절한 해설이 함께 하는 공연과 도슨트 등 도우미들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전시회 등 '배우면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늘고 있다.

진정한 문화 시민이 되기 위해 작은 발걸음부터 떼어보자. '예술은 어렵고 고상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예술의 거니나 백화점의 미술관에 꼭 한번 들어가보고, 집 근처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음악회에도 들러보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창사 54

출장뷔페·도시락남품·위탁급식

- 회갑, 칠순-팔순 잔치, 병원개원식
- 상당 교회 결혼식 음식, 정년퇴임식
- 재업식·기념식

파티외식산업

- 시외·시내 출장전문
- 체육대회·아유회
- 식탁·의자 무료지원
- 연회장 주차장 원비

www.party-food.co.kr

상당전화: 광주본사 220-0085-7 ■ 마포지사 10611294-1115 ■ 순천지사 10611723-0003 ■ 진해·진주지사 10631277-0093